

부공저

‘로또 인생’ 그리고 ‘운명론’

근래 인기리에 끝을 낸 ‘응답하라 1988’이라는 연속극에서 정봉이네가 동네에서 제일 부유하다. 정봉이가 대학에 6번이나 떨어지고 7수를 하면서도 게임이나 즐기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데도 정봉이 부모는 정봉이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던 정봉이네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꾸준하게 구입한 정봉이의 복권이 1등에 당첨되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정봉이처럼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지난 한해 우리나라 복권 판매



종 상
(청계사 회주)

력이나 노력보다 가정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즉 사람은 불평등하게 태어나서 불평등하게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다. 부모가 고학력이면 자녀도 고학력, 아버지 직업이 전문직이면 아들도 전문직, 아버지가 단순노무직이면 아들도 단순노무직으로 대를 잇는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죽하면 ‘금수저’ ‘흙수저’라고 수저 계급론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한다. 이처럼 사회과학적 연구 결과가 ‘운명론’이라면 그런 사회는 분명 문제가 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

지속된 불황 속 깊은 경제 불평등

마음 다스려 자족하며 평안하게 탈출

액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아무리 복권판매로 조성한 기금이 공익을 위해 쓰이기는 하지만 복권판매에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 것은 반갑기보다는 오히려 씁쓸하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목돈을 만들 수 없다고 체념하는 서민의 우울한 현실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복권을 구입하는 것이 서민의 소소한 재미이기도 하겠지만 절망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달리 희망의 사다리가 보이지 않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희망으로 위장된 복권을 산다. 지속된 불황 속에 이뤄진 복권판매의 증가세는 다시 한 번 경기회복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를 역설적으로 깨우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 나온 한 조사는 수십 년 사이 우리 사회는 계층이 대물림 되면서 계층 고착화 현상이 일고 있다고 한다. 타고난 능

하든 다음 세대는 같은 출발점에서 같은 조건으로 달릴 수 있어야 계층이동이 가능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다리를 차근차근 올라가면 누구나 꼭대기에 다다를 수 있다는 희망, 계층 이동의 꿈이 살아 있어야 건강한 사회이다. 날로 벌어지는 빈부격차, 깊고 깊은 경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책이고 정치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한 가지 이유이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라는 것을 환기해야 한다. 우리는 빈 몸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빈 몸으로 떠난다. 물론, 소우로 행복을 얻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담담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로부터의 탈출도 결국은 마음이 할 일이다. 마음을 다스려 자족하고 평안하다면 행복이 그보다 확실한 처방은 없었다. 마음 다스리는 일, 기도와 수행에 더 매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불보살의 가피로 불제자로 태어나길

‘업장소멸 발원’ 정월 방생법회 봉행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불보살이 들려오는 지난 2월 18일 청계사에서는 주지 성행스님을 비롯하여 정다, 성담, 성견, 성심(석가사), 명원스님과 불자 300여명이 전남 화순 만연사로 방생법회를 다녀왔다. 주지 성행스님은 법회를 봉행하며 “오늘 방생하는 미물이 불보살의 가피를 받아 불제자로 태어나길 발원 하며, 방생공덕은 업장소멸과 남은 공덕이니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다.”라고 했다. 이에 불자들은 업장소멸을 발원하며, 명원스님의 불, 법, 승 구호에 맞춰 신도회에서 준비한 미꾸라지를 방생했다. 화창한 날씨에 수온이 따뜻해 활기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양을 보며 ‘참회진안’을 염불하며 부디 건강하게 잘살아 가기를 기원하며 각자 염원을 담은 ‘소원지 소각의식’을 가지며 방생법회를 마쳤다.

이후 순례 길에 오른 만연사는 만연이라는 사람이 십육나한이 석가모니불을 모시려고 불사를 하고 있는 꿈을 꾸 후 주위를 돌아보니, 눈이 많이 내려 쌓여 있었으나 자신이 누웠던 자리만이 길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이를 신비롭게 여겨 토굴을 짓고 수도하다 절을 세웠다고 한다. 참배를 하고 점심공양을 마친 불자들은 사찰내에 있는 다실에 둘러 차를 즐기며 담

소를 나눈 후 강가 절벽의 돌이 붙어 절경이 빼어나, 임역령 선생은 신선이 사는 ‘적벽동천’이라 칭했다. 정약용 선생이 시를 읊고, 방랑시인 김삿갓(김병현)이 수차례 찾아 노래하다 근처에서 숨진 일화로도 유명한 ‘적벽’을 둘러보며 각자 사진촬영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글·사진 박문성행)



◇미물들의 불보살님 가피를 발원하며 방생법회를 봉행하는 주지성행스님과 사중스님들.



◇참회진안을 염불하며 방생하는 불자들.

생활의 지혜

이야기 백유경

물에 젖은 나무로 숲을 만든 사람

힘들어도 나아가야 하는 진실에 이르는 길

○...진실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다. 안일하고, 욕심을 내고, 어리석게 마음이 움직이는 일이 쉽게 앞서서 불쑥불쑥 드러나기 때문이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속생애에 쌓여진 탐진치의 습 덩어리가 몸속에서 그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힘겹고 어렵다 하더라도 진실한 길을 걸어가야 마침내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 평상시에 계율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참선수행을 하는 것은 바른 길을 찾고 인내를 통해서 바른 삶의 방식이 되어 마침내 부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게되는 것이다. ○...불자라면 지켜야 할 기본 5계부터 실

옛날 어떤 장자의 아들이 있었다.

그는 바다에 들어가 여러 해 동안 물에 잠겨 있던 나무를 건져내어 수레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다시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하였다.

그러나 값이 비쌌기 때문에 얼른 사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 날이 지났으나 팔지 못하여 마음은 괴롭고 몸도 피로하였다.

옆 사람이 숲을 파는데 당장 그 값을 받는 것을 보고 가만히 생각하였다.

‘차라리 이것을 태워 숲을 만들어 빨리 그 값을 받는 것이 낫겠다.’

그리하여 그것을 태워 숲을 만들어 시장에 나가 팔았다.

그러나 반 수레의 숲 값밖에 받지 못하였다.

《예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도 그와 같다. 한량없는 방편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부처의 결과를 구하다가 그것을 얻기 어렵다고 하여 곧 물러나서는, 차라리 마음을 내어 성문(聲聞)의 결과를 구하여, ‘빨리 생사를 끊고 아라한이 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천하고 있는지 시시때때로 돌이켜 점검할 일이다.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는 5계는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로 돌아옴을 알아서 차근차근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법보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법보시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 : 10,000원 100부 : 20,000원

- * 법 보시 명단
 - ♣ 서울구치소 박유진 150부
 - ♣ 안양교도소 김형수 50부, 김영현 50부, 김영민 50부
 - ♣ 수원구치소 성호열 50부
 - ♣ 청주여자교도소 김희숙 50부
 - ♣ 경주 교도소 이갑숙 50부, 이근혁 50부, 이고은 50부, 윤석호 50부
 - ♣ 여주교도소 손영호 50부, 김정중 50부
-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 : 청계사 출판부)

출가절~열반절 기도

부처님의 출가절과 열반절을 맞아 8일간 신묘장구 대다라니 주력 기도를 봉행합니다. 간절한 신심으로 부처님의 복덕과 선근 인연의 소중한 씨앗을 심고 원만한 신행 정진을 통하여 세세생생 보살행을 닦아 성불하시길 기원합니다.

- 입 재 : 3월 16일(음 2월 8일) 사시
- 철야기도 : 3월 22일(음 2월 14일) 저녁 9시~새벽 4시
- 회 향 : 3월 23일(음 2월 15일) 사시
- 기 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 기 도 비 : 3만원

※ 3월 셋째주 금요일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기도는 출가절 철야기도 관계로 기도 없습니다.

산신기도 안내

기도를 통해 다짐 생래의 업장을 소멸하시고 소구 소원하시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산신기도를 봉행합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입 재 : 2016년 4월 20일(음력 3월 14일) 오전 10시 30분
- 철 야 : 2016년 4월 21일(음력 3월 15일) 저녁 9시부터~새벽 4시
- 회 향 : 2016년 4월 22일(음력 3월 16일) 오전 10시 30분
- 기도비 : 3만원
- 온라인 : 109-030451-01-055(기업은행)
- 예금주 : 청계사

봄맞이 성지순례

관음회에서 주최하는 봄 성지순례가 아래와 같이 봉행됩니다. 불법이 깃든 성지를 찾아 간절한 신심으로 부처님의 복덕과 선근 인연의 소중한 씨앗을 심고 벚꽃이 활짝 핀 산사를 찾는 성지순례에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일 시 : 2016년 4월 11일(월요일) 오전 7시 출발
- 순례지 : 경남 남해 화방사, 용문사
- 동참금 : 4만원
- 출발장소 : 인덕원역 3번출구 미가참치암
- 접수처 : 종무소 031)426-2221,2348 관음회장 (만덕화)010-6308-7097 관음회총무(여경수)010-6297-3111

청계사 관음회

선원제전집도서

선의 근본이 되는 선장을 만들고 총괄하여 쓴 서문

중국의 규봉스님이 불교 교리를 개론한 <선원제전집 도서(禪源諸詮集都序)>는 말그대로 '선원제전집'의 서문으로 줄여서 <도서>라 불리며 강원에서 사집과의 학인스님들이 배우는 과목이다. 1200여년전 선종과 교종으로 분열되던 중국 당나라 때 규봉스님이 선과 교의 일치를 주장하면서 이책을 통해 선과 교는 서로 수행을 도와 성불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규봉스님의 이같은 노력은 결국 선교통합을 이끌어내고 오늘에 이르게 된다. 배우기 어려운 이 과정을 불국사 승가대학 학장 덕민스님의 강설로 입문할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선원제전집도서 권상(禪源諸詮集都序卷上)

반대로 호법은 공을 잘못 이해하여 죽으면 끝이라는 단멸론을 깨트려 연기하는 가운데 그옥이 아는 식(識)이 있음을 알려주어 묘유를 체득하게 합니다. 하나에만 집착한다면 그 하나는 편벽된 사건이 되지만 다른 가르침이 있음으로 해서 서로 집착하여 머무는 마음을 깨트려주니 정법이 됩니다.

由妙有真空이有二義故니 一은 極相違義니 謂互相害하야 全壽永盡이요 二는 極相順義니 謂冥合一相하야 舉體全攝이라 若不相奪全盡이면 無以舉體全收故로 極違라 方極順也니 龍樹無著等은 就極順門故로 相成이요 淸辯護法等은 據極違門故로 相破니 違順自在하고

로 치달리면 허무 단멸론에 빠질 것이요, 유(有)일변도에 치달리면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상주론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공격하여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비로소 그 가운데 인연화합(因緣和合)에 의해 생겨났다 사라져 간다는 공성(空性)의 상(相)에 합하여 진공묘유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집착할 어떤 대상도 존재하지 않고 머물러 유지하는 어떤 주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바른 관점으로 수행 정진해 나가야 할 것인데, 지금의 수행자들은 자신이 공부하는 이치만이 옳다고 하여 다른 법을 말하는 사람을 헐뜯을 줄만 아니 잘못되었다는 말씀

상호보완 작용, 묘유 진공 공성의 상 집착된 개념 허무 단결론, 상주론 마음, 생각을 관찰하여 스스로 증득

成破無礙하야사 卽於諸法에 無不和會耳나라 衰故라 此方兩宗後學經論之者는 相非相斥을 不異仇讎하니 何時에 得證無生法忍이며 今頓漸禪者도 亦復如是하니 努力通鑑하야 勿偏局也이다.

묘유와 진공이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이니, 하나는 지극히 서로 어긋나는 뜻이니 서로서로 해롭게 여겨 완전히 빼앗아 영원히 없애버림을 말하고, 둘은 지극히 서로 따르는 뜻이니 가만히 하나의 모양에 합하여 본체를 들면 전부 다 섭수됨을 말한다. 만약 서로 빼앗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는다면 본체를 들어서 전부를 섭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극히 어긋난 이 바야흐로 지극히 따르는 것이다. 용수와 무작 등은 지극히 따르는 문을 취한 까닭으로 서로 이루어 주었고, 청변과 호법 등은 지극히 어긋나는 문을 의거한 까닭으로 서로 깨트렸으니, 어긋나고 따름이 자유자재하고 이루어 주고 깨트림이 걸림이 없어야 곧 모든 법에 화합하여 잘 이해하지 못함이 없을 뿐이나라, 슬프도다. 우리나라의 두 종파의 경론을 배우는 후학들은 서로 비방하고 서로 배척함을 원수와 다르지 않게 하니, 어느 때에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증득할 것인가. 지금의 문점(頓漸)을 말하는 선사들도 또한 이와 같으니 노력하고 통하게 비추어 보아 편벽되게 국집하지 말지이다.

[설의] 진공(眞空)과 묘유(妙有)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서로 어긋나는 개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근본이치에서 살펴보면 이는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를 잘못 이해하여 하나의 개념에 집착하여 공(空)일변도

입니다.

問이라 西域先賢의 相破가 既是相成인댄 豈可此方相非인들 便成相嫉이리오

답이라 如人飲水에 冷暖自知라 各各觀心하며 各各察念이니 留藥은 防病이라 不爲健人이요 立法은 防奸이라 不爲賢士나라

문노라, 서역의 앞선 성인들의 서로 깨트림이 이미 서로 이루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나라는 서로 비방하여 곧 서로 질투함을 이루는가?

답하노라,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에 차고 뜨거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

각각 마음을 관찰하며 각각 생각을 살필지니, 악을 남겨두는 것은 병을 방지하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을 위함은 아니요, 법을 세움은 간사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현명한 사람을 위함은 아니니라.



덕민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 학장>

제49강 百丈의 耳聾과 醬三瓮 (1) (백장의 이농과 장삼옹)

선문염송 제6권에는 洪州(홍주) 百丈山(백장산) 檇梅(회회)선사, 池州(지주) 魯祖山(노조산) 寶雲(보운)선사 伊闕代牛山(이궤대우산) 自在(자재)선사 潭州(담주) 三角山(삼각산) 總印(총인)선사 浦州(포주) 麻谷山(마곡산) 寶徹(보철)선사 杭州(항주) 塩官(염관) 海昌院(해창원) 齋安(재안)선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백장선사에 관한 이야기는 많지만 특히 삼일 동안 귀가 먹었던 들어우에 대한 설화는 재미있다.

다음은 耳聾話(이농화)이다.

「백장이 다시 마조스님을 찾아보오니 마조스님께서 拂子(불자)를 들어 세웠다. 백장이 물었다.

「卽此用(즉차용)입니까, 離此用(이차용)입니까?
마조가 拂子(불자)를 도로 제자리에 갔다 걸었다. 백장이 良久(양구)하니 마조가 말했다.

「네가 이 뒤에 이 두 눈을 열 때에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지도하겠느냐?
백장이 拂子(불자)를 가져다 세우니 마조가 말했다.

이 시대 우리들의 '화두' 회주 종상스님의 '선문염송' 강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스님으로 인하여 馬祖(마조)의 大機之用(대기지용)을 보았을 뿐, 또한 마조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마조의 법을 잇는다면 이후에 나의 兒孫(아손:아들과 손자)들을 모두 喪(상)하게 할 것이다.」하였다.

말없는 一喝(일갈)이 天下(천하)를 귀머거리 하였다. 일없는 가운데서 일을 일으켜서 본래의 제자리를 가르켜 보이니 분명한 一喝(일갈)이 萬代(만대)에 유전한다.

이농)하고 黃檗(황벽)은 不學吐舌(불학토설)한 것은 千古(천고)의 活消息(활소식)이다. 百丈(백장)은 大機(대기)를 얻고, 황벽은 大用(대용)을 얻었다고 仰山(양산)은 말하였다.

이것이 어찌 마조회상 뿐이라. 오늘 에도 내일에도 있고 있을 것이다. 다음은 百丈(백장)의 奇特事(기특사)다. 『百丈(백장)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물었다.

「如何是奇特事(여하시기특사)입니까?」

「獨坐大雄峰(독좌대웅봉)이 아니라 스님이 예배하고 가려하니, 백장이 문득 한 대 걸었다.」

대웅봉이 우뚝 솟아 있는 것만 기록한게 아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젖을 빨고 오줌 똥 누는 것도 모두가 기록한 일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절하는 놈 뒤꽂지를 내려 갈겼거나 토끼가 관화법의 수업을 어루만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두 스님이 『祖域交馳天馬駒(조역교치천마구) 化門舒卷不同途(화문서권불동도) 電光石火存機變(전광석화존기변) 堪笑人來聽虎鬚(감소인래료호수라 하었다. 祖域(조역)의 설치로 天馬駒(천마구)가 化門(화문서권)의 길이 같지 않구나 눈이 번쩍이는 電光石火(전광석화)와 같은 機變人(기변인)이 법의 수업을 만지는 사람을 웃긴다는 말이다.

말없는 일각이 천하를 귀머거리 하고 일각의 위세에 소문도 또한 귀가 밝지 못하다

루를 묵고 하직하며 <마조스님을 뵈우러 가겠다>하니 백장이 말했다.

「마조는 이미 돌아가셨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조께서 무슨 말씀이 계셨습니까?
백장스님은 두 번째 뵈오려 갔던 말씀을 하고 나서,
「내가 그때 마조의 한차례 할을 받고 문득 삼일동안 귀가 멍하였다.」
하니, 황벽이 듣고 감짝 놀라 혀를 빼물었다. 백장이 물었다.
「그대는 마조의 법을 잇지 않으려는가?」

그러므로 大覺鍾(대각연)이 『卽羽鶻(적우갈) 商觸處通(상촉처통) 師資交互現(사자교호현) 宗風(사자교호현종풍) 振威一喝霜鷲(진위일喝霜鷲) 任是昭文也不聽(임시소문아불총)이라 頌(송)하였다.

「羽鶻(우갈)의 音律(음률)을 각처에 適(적)하여 스승과 제자가 번갈아 宗風(종풍)을 일으키니, 一喝(일갈)의 위세에 昭文(소문)도 또한 귀가 밝지 못하다.」하는 말이다.

昭文(소문)은 음율을 잘 알아 鑿貫(진상)의 음악가였다.
마조의 일화에 백장은 三日耳聾(삼일

뉴스 & 뉴스

입춘기도 입제

지난 2월 4일 야외법당에서 입춘을 알리는 바람소리에 풍경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지스님의 독경소리와 정다, 성담, 성견, 성안, 명원, 대휴스님 등 사부대중은 성대하게 입춘기도를 봉행 했다.

이날 주지스님은 “마음의 봄이 왔다. 봄의 향기가 득한 열린 마음 되는 기도와 함께 마음을 다스려 잘 살아가야 한다.”며 “‘천’, ‘지’, ‘인’ 하늘과 땅과 인간의 의해 다양한 일이 일어난다.”며 “입춘대길이라 함은 복을 받는게 아니라 복을 짓는 것을 의미 함이니 ‘행림해광도강양(杏林海廣都講樣)’ 진정한 지혜는 어려울수록 좋은 일을 행 할 때 빛을 발하니 묵은 업을 씻어 버리고 새 출발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힘든 일도 내 것이요. 어려운 일도 내 것이니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법문 했다.

사시기도후 업장소멸, 삼재기도로 우환을 멀리하고 가정의 만복과 세해 운수대통을 발원하며 입춘기도를 마쳤다. <글 황정량님>

동안거 관음기도 원만회향

지난해 11월 26일(음력 10월 15일) 전국의 선방에서 동안거 결제에 들어가 지난 2월22일(음력 1월 15일) 1백일 동안의 수행정진을 마치고 해제하던 날, 정계사도 1백여 명의 불자들이 더불어 백일관음기도를 봉행하여 회향을 맞았다.

보름 기도와 맞물린 이날 동참한 불자들은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에 이어 '회향성종'을 독송한 후 경



적어 달아놓은 소원지를 소하며 동안거해제와 백일 관음기도를 원만히 회향했다.
기도를 집전한 정다스님은 “각 가정이 만사형통하고 소원성취 하라.”고 기원했다. <글 심대덕님>

연륜 많은 노보살 속한 1조 우승차지 상락회 정기 총회 및 척사대회

지난 2월 22일(음력 1월 15일)정계사 선불장에서 상락회(회장 오자명님, 서자비화)는 1부 병신년 정기 총회를 주지 성행스님과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운날씨에 많이 참석해 감사하며 척사대회 즐겁게 보내시고 올해도 많은 협조 부탁 한다는 회장단의 인사말과 감사, 재무보고, 안건토의 및 건의사항, 활동계획, 부회장 조장선출 순으로 진행 했다.

이날 성행스님은 “좋은 계획 세워 처음 발원한 모습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며 각 가정의 평안과 이웃과의 소통으로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부 척사 대회는 3번째 열리는 것으로 사중스님들과 회원들이 조별로 토너먼트로 진행 했으며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웃음꽃이 연륜이 깊은

내 를 돌 고 입춘기 도부터 보름까지 열 날 앞 에 각각의 소원을 노보살님이 대부분인 1조가 1등을 차지한 가운데 상금은 일곱조에 고루 전달되었다. <글 상락회 간사 박원행님>

삶을 공생하며 늘 기도하고 실천하자 정초 7일 기도 입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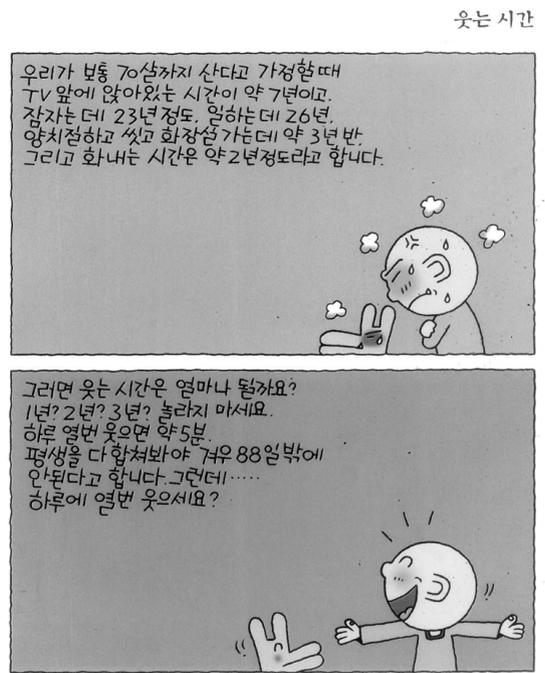


지난 2월11일(음 1월 4일)야외법당에서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병신년 정초 7일 기도를 입제했다.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합창단의 음성공양과 육법공양, 삼귀의례에 이어 주지성행스님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한 것이지만 돌아갈 때는 부처님 뜻대로 이니 진실하게 잘 살아야 한다. 삶을 공생하며 무엇인가 고달프고 허전하면 늘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채워 나가야한다.”고 법문하며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사시 예불을 마치고 주지스님께 새배를 했다.

또 2월 13일에는 회주 종상 큰스님께 각 신행단체는 새배를 올리며 ‘새해에도 화합하여 복짓는 한해 되라’고 덕담을 나누며 신년 하례식을 가졌고 2월 17일 사시에불로 7일 정초기도를 회향했다. <글 서용화님>

건강은 최고의 재산,
만족은 최고의 보배,
믿음은 최고의 친구,
깨달음은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법구경

마음 밭에 무얼심지? - 중에서 -





마음따라 찾아가는 산사순례 35

한국불교 대표 종단 조계종 사찰은 전국에 3천 사암에 달 합니다. 이 사찰은 행정 구역상 25교구로 구성되며 각 교구마다 본사가 설치되어 소속된 말사 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획지면으로 떠나는 '108성지 순례'는 25개 교구본사를 순례하고 '관음성지' '지장성지' '미륵성지' 주요 영험 기도처별로 찾아 나서, 신도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관음성지④ **봉정암**



◇2014년 7월 보물 제1832호로 지정된 봉정암 5층 석탑.

봉정암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 소정봉에 자리 잡고 있다. 양산 통도사, 영월 법흥사, 정선 정암사, 오대산 상원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5대 적멸보궁 중 한 곳으로 불교 신도들에게는 최고의 순례지다. 이 절은 우리나라 사찰 가운데

가장 높은 곳(해발 1,244m)에 있다. 백담사와 오세암을 거쳐 봉정암으로 가는 길은 만만치가 않다. 하지만 불자나 순례자들은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봉황이 알을 품은 듯한 형국의 산세에 정좌하고 있는 봉정암은 거대한 바위를 중심으로 기린봉·할미봉·범바위·나한봉·지장봉 등 기

지름의 자리를 잡아주었다. 그리하여 이곳에 사리를 봉안하고 절을 세웠는데 그 이름을 봉정암이라고 하였다. 원효·보조 등 여러 고승들이 이곳에서 수도하였으며 677년(문무왕 17) 원효스님이, 1188년(고려 명종 18) 지눌스님이 증건한 것을 비롯하여, 1518년(중종 13)에 환적(幻寂)

5대 적멸보궁 중 하나, 불자 최고 순례지 부처님 사리 봉안한 석탑 보물로 지정

암괴석의 고봉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봉정암 북쪽 독성나한봉 아래에 있는 봉우리는 석가봉을 향해 절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가섭봉이라 부르며, 탑바위는 봉정암 북쪽에 있는 웅장한 산으로 석가모니의 이름을 따서 석가봉이라고도 한다. 암자의 이름이 '봉정(鳳頂)'인 것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온다. 선덕여왕 12년(643)에 당나라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가지고 귀국한 자장율사가 이곳에 도착하여 주변 경관을 살펴보고, 뒤쪽으로는 대청봉, 중정봉, 소정봉의 산줄기가 이곳에서 멈춘 뒤 기암절벽의 지세를 형성했고, 눈앞의 바위들은 질서 정연하게 좌정룡, 우백호를 연출하며 포근하게 봉정암터를 감싸고 있었다. 연화대 위에서 바라보면 왼편으로 용아장성이, 오른편으로는 공룡능선이 펼쳐지고, 바로 그 아래 끝자리에 자연석탑을 쌓은 듯한 바위들이 수없이 쌓여 있었다. 천하의 길지를 발견한 자장율사가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적멸보궁을 세우려 하자 봉황이 날아와

스님이 중수하였다. 봉정암 법당 옆 바위 위에는 부처님 사리를 봉안한 고려시대의 석탑이 있다. 사리탑은 5층의 석탑으로 높이가 3.3미터인데, 전형적인 신라 양식을 생략한 고려시대 석탑 양식을 띠고 있다. 상륜부에는 노반과 복발이 있고, 그 위에 큼직한 원뿔형 보주가 놓여 있다. 문화재청은 2014년 7월 봉정암 5층 석탑의 역사와 예술미, 건축적 가치를 인정하여 보물 제1832호로 지정했다. 어디 한 군데 결손 된 부분이 없는 완전한 형태의 석탑으로 주변의 빼어난 산세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다른 사찰의 어느 탑과 달리 기단부가 없고 자연암석을 기단부로 삼아 그 위에 바로 5층의 몸체를 얹었다. 이 자연암석에 연꽃이 조각되어 있는데, 1면에 4엽씩 16엽이 탑을 포개고 있어 부처님이 정좌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맨 위에는 연꽃인 듯한 원뿔형 보주가 높이 솟아 있다. 〈정리 여백진〉



성행스님과 함께하는 부처님의 생애 36

평화와 평등의 가르침

살인자 앙굴리말라 (2)

스승의 말씀 속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려는 생각조차 그에게는 불경스러운 것이었다. 날이 시퍼런 칼을 집어든 아힘사까는 곧장 네거리로 달려 나왔다. 사나운 이리처럼 미친 듯이 휘두르는 칼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아힘사까는 죽은 사람들의 손가락을 엮었다. 붉은 피가 똑똑 흐르는 손가락을 목에 걸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거리를 누비고 다녔다. 앙굴리말라는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엮은 손가락을 세어보니 딱 한사람이 부족했다. 그때 두리번거리며 숲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였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몽둥이를 겨누는 살인마이지만 그의 어머니에게는 끼니를 굶은 사랑스러운 아들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은 그에게 그의 어머니도 부족한 손가락을 채워줄 마지막 한사람이었다. 시퍼런 칼날로 어머니의 목을 치러던 순간 아들이 내린 숲 속으로 환한 불빛이 보였다. “아, 부처님이시다.” “예, 부처라고요?” 앙굴리말라는 고함치며 달려 나갔다. “사문아, 멈춰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 걸음 앞선 부처님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다.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린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해치려는 마음을 모두 멈추었는데 그대는 아직 해치려는 마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나는 자비심에 머물러 일체중생을 사랑하는데 그대는 악업을 멈추지 못하고 삼악도의 고통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나는 번뇌 망상을 끊고 진리에 머물렀는데 그대는 진리를 보지 못해 그릇된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누구보다 총명했던 앙굴리말라였다. 앙굴리말라는 칼을 던지고 땅바닥에 엎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조금도 망설임 없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라, 비구요.” 그날 밤, 피와 땀이 엉켜 붉은 머리카락을 자른 앙굴리말라에게 부처님은 차근차근 법을 설해주셨다. 잘못된 소견에 자신과 남들을 해치는 행위를 멈추지 못하는 중생들의 실상,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결박에 묶여 고통스러워하는 윤회의 긴긴삶, 그릇된 견해와 결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 평화롭고 청정한 삶을 말씀해 주셨다. 동쪽하늘이 밝아올 무렵, 은빛 번뇌가 사라진 앙굴리말라는 진리에 눈을 떴다.

사찰음식 배워보기

냉이국

재료:냉이 1kg, 풋 고추 5개, 된장1 1/4C
맛국물:건 표고버섯 5개, 무 1도막, 다사마 1장, 물

1. 사마를 넣고 끓여서 맛국물을 낸다.
2. 건 표고버섯, 무, 다사마를 건져준다.
3. 끓는 맛국물에 체를 이용해 된장을 맑게 풀어준다.
4. 마지막으로 어섯 썬 풋고추와 냉이를 넣고 더 끓인다.

〈순서〉
1. 냄비에 물, 표고버섯, 무, 다

〈정리 주은숙〉



옛날 중국에 청렴하고 의로운 말단 공무원이 있었다. 성이 장 씨인 그는 몹시 자비로워서 박봉에도 푸줏간에 가 도살될 동물들을 사서 집으로 데리고 와 길렀다. 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이 늙어서 죽으면 반드시 정성껏 묻어 주었다. 그는 늙어 은퇴하고 노년을 자식과 손자들 그리고 동물들을 보살피며 보냈다. 이웃들은 그를 바보라고 생각했으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식들에게 어떤 동물도 죽이지

불살생과 방생의 공덕

생명사랑 이야기 100

24장수, 행복 그리고 영예

평생 동물을 구해서 공덕 쌓고 100수 누려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가족 전체가 채식했다. 채식을 해서인지 그는 100살이 넘었을 때도 여전히 건강했다. 눈은 밝으며 피부는 윤택하고 머리카락은 검고 윤기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전 가족을 불러 모았다. 자식, 손자, 증손자, 고손자들이 모두 그 앞에 모였을 때, “내 평생에

많은 동물들을 구해서 너희들을 위해 많은 공덕을 쌓았다. 오늘 하늘나라 궁전에서 나를 부르러 왔다. 앞으로 장 씨 가문은 번영할 것이고 너희들은 모두 오래 살 것이다. 내가 죽은 후 항상 내 가르침을 기억하라. 결코 어떤 생물이든 죽이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그 때 하늘에서 보내는 것과 같은 음악소리가 들렸다.

결고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음악소리는 거룩하기 까지 하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 했다. 가족들이 음악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찾으려고 위를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내려 보았을 때, 장 씨는 놀랍게도 평소 그가 좋아하던 의자에 행복하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어떤 병도 앓지 않고 편안한 숨을 거두었다.

지방 관리들이 그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황제는 죽은 장 씨를 높은 관직으로 승진시켜 영예롭게 하였다. 이후 장 씨의 자손들은 결코 그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고 모두 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연지 주평스님
〈중국 명나라고승〉

우리절 명장면



◇간절한 소원을 적은 소원지를 달고있는 불자.

〈사진 · 황청량심〉

청계사 정기법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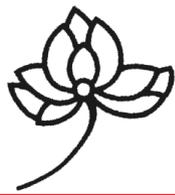
- ◇ 초하루 법회
음력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주 종상 큰스님 또는 주지스님 법문)
- ◇ 3일 신중기도
음력 매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 약사재일 기도
음력 매월 8일 오전 10시 30분
(약사 여래 본원경)
- ◇ 보름법회
음력 매월 15일 오전 10시30분
(다라니주력기도)
- ◇ 지장재일 법회
음력 매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성담스님 법문)
- ◇ 관음재일 법회
음력 매월 24일 오전 10시 30분(성전스님 법문)

- ◇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기도
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후7시~11시
- ◇ 어린이·청소년 법회
매월 2, 4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불교 교양 대학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 불교 경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 시민선원
매주 월, 수, 오후 2시, 저녁 7시
경내 선불장
- ◇ 새벽 예불
매일 새벽 4시

- ◇ 사시마지 기도
매일 오전 10시 30분
- ◇ 저녁예불
매일 저녁 6시30분
- ◇ 문 의
종무소 (031)426-2221/426-2348
은행계좌 : 109-030451-01-055
중소기업은행 (예금주 : 청계사)

※ 차량안내

미가참치(구 오성갈비)앞에서 매일 오전 9시와 10시에 출발합니다. 초하루나 큰 법회(인중, 초파일, 칠석, 동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로 운행합니다. 내려가는 차편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이야기

2016년 녹향원 연간 프로그램 활동계획

아래의 내용으로 거주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레관리 후 계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후원자님과 자원봉사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주지원 팀장 서효정>

Table with 4 columns: 연번, 프로그램명, 진행횟수, 비고. Lists various activities like '트레킹', '생일파티', '신바람노래교실' etc.

2016년 1월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1월1일부터 ~ 1월 31일까지) (단위 : 원)

Summary table of 2016 Jan donations and expenses. Columns include 수입 (수입), 지출 (지출), 전월이월금, 차월이월금.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16년 2월 1일~2016년 2월 29일)

Table listing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Categorized by (직접납부), (지도납부), (지료납부), (후원저금통).

* 물품 후원

의왕시청-리첵(햄)75개, 육시크린 10개, 에스원-사과 8박스, 삼미주유소-쌀 60kg, 청계사-쌀 80kg, 과일 1봉지, 떡 1박스, 해연각보살-김 2봉, 현대위니아-떡 35개, 청계산장-김 1팩, 현대로템-전병 선물세트 1개, 휴지 1팩, 햄 3세트, 참치 3세트, 세제 4.2kg, 김 1박스, 쌀 40kg, 거주인(모상천)보호자-계란 3판, 수건 64장, 거주인(권기범)보호자-

파운드케이크3개, 거주인(오유연)보호자-마나나 1박스, 이호철-굴 1박스, 김명순-쌀 40kg, 원주주어탕-추어탕 10kg, 김치 4봉지, 강은주(만토)-샌드위치 19개, 여성봉사사랑회-빵 80봉, 거주인(한상진)보호자-한라봉 1박스, 곡수 2박스, 거주인(김진형)보호자-플레이크27개, 보인행-동원혼합5호 선물세트, 거주인(남정환)보호자-빵 20개, 이형제-나물 4kg, 김영주-마나나 2송이

새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등불

역부여시

산이 높다 해서 반드시 명산이 아니듯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 아닙니다. 가려볼 줄 알고 새겨들을 줄 아는 세월의 연륜과 경험과 지혜가 쌓여 판단의 심지가 바른 사람을 어른이라 합니다. 또한 성숙함은 높임이 아니라 낮춤이 전제되는 것과 비움이 채워진 사람이 스스로 넓어지고 깊이 있을 때 어른이라 합니다. 잘못과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자비로 용서하고 홀로 낙오자로 전락할까 염려되어 방관할 수 없어 받아주고 감싸주는 사람을 어른이라 합니다. 너는 절대 안 돼, 너만은 용서할 수 없어

가식적 현실이 비가식적 생각의 열매처럼 좋은 생각 바른 생각을 동무하며 살아야 해요. 행복은 선택입니다. 행복은 습관입니다. 불행도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과 습관으로 행복을 만들고, 불행의 늪에서 불행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행복은 없습니다. 건강과, 사랑과, 행복과, 기쁨은, 석양 노을빛처럼 무상함을 직시하세요. 행복의 언덕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산수를 바라보는 빈승도 완벽한 인생을 살아오실 못했지만 부족하면 부족한데로 흐르는 물



성행 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행복과 불행은 선택, 습관입니다.

물처럼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으로 함께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 주신데 주는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 합니다. 배려라는 마음으로 밤도 먹고 잠도 자고 차를 마시며 마음을 나누는 사람을 어른이라 합니다. 할 일이 많은 사람임에도 사랑의 씨를 곳곳에 뿌려 살아가도록 일깨워주며 술선수범하는 사람을 어른이라 합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도 배려를 사랑으로 동무해 살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행복이란 행복한 생각에서 생산되는 것이며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살아가세요.

처럼 인연 따라 왔습니다. 노자(老子)의 인간수양(人間修養)의 근본은 물이 가진 일곱 가지 덕목(水有七德)을 찾아야 한다 했습니다. 내는 곳을 찾아 흐르는 謙遜(겸손), 막히면 돌아갈 줄 아는 智慧(지혜), 구경물도 받아주는 包容力(포용력), 어떤 그릇이나 담기는 融通性(융통성), 바위도 뚫는 끈기와 忍耐(인내),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勇氣(용기),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大義(대의)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물처럼 사는 것(上善若水)이라고 하였습니다. 물과 같은 자세로 때로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이 되소서 오늘도 행복한 날 되소서

생활의 지혜

○해로운 박테리아 독소를 없애주는 우유 위장 건강증진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우유에는 이눌린(Inulin)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건강하지 않은 위장은 해로운 박테리아가 존재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독소혈류 속으로 새어 들어가 간의 해독작용을 방해한다. 이눌린은 바로 이러한박테리아 독소를 제거하는 피를 맑게 해준다. 또한 간의 독소를 제거 해결과정으로피를 맑게 해준다. 또한 신장 기능을 도와 몸에 노폐물을 순조롭게 배설하는작용도 한다.

○노폐물 배설 효과가 뛰어난 녹두 의약품 남용으로 인한 독을 풀어주고 농약과 중금속 중독 치료에 도움을 주는 녹두, 알코올 해독 작용 또한 뛰어난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해독 작용 후 걸러진 유해 물질을 소변을 통해 빠르게 배설 하도록 돕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부터 녹두는 백가지 독을 풀어 주는 명약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피부에도 유효하게 작용해 곰개 갈아 팩으로 사용하면 화장품을 가라앉혀 주기도 한다. <정리 공은정>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녹향원은 의왕시 청계동 43번지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로 청계사에 운영·지원하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이달의 후원금

금 6,461,340원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국민은행: 870501-00-008169 (예금주-녹향원)

녹향원이 법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후원금 계좌를 개설 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후원을 계획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위의 후 원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존 후원자분들은 기존 계좌를 사용 해 주시면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CMS 자동이체는 녹향원을 방문하시거나 매달 초하루법회에서후원모집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1회 학습지도, 청소, 목욕 봉사를 합니다. 뜻을 함께 하실 분은

- 녹향원 - 031)426-6698
• 청계사 - 031)426-2348, 2221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2월 봉사자 명단

- 단체
청계사유발도로프학교 봉사단, 삼성에스원 큰나눔봉사단, 바다의별, 서울구치소, 용화사보현회
• 가족
김우식가족, 박해숙가족, 이주영가족, 조성범가족
• 성인
장병수, 김남영, 차성령, 최연희, 김봉희, 김정주, 최은경, 김영수, 윤여송, 김성주, 이인혜, 유병덕, 윤현숙, 오인희, 신현숙
• 학생
한지현, 김다운, 윤해령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공덕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계좌 : 국민 870501-00-008169 녹향원

운(運)은 있지만 정해진 운명(運命)은 없습니다. 운은 노력한 결과입니다.
재미로 보는
이달의 운세
<정리 공은자>

12 zodiac signs horoscope section. Includes signs like 쥐띠 (Rat), 호랑이띠 (Tiger), 용띠 (Dragon), 말띠 (Horse), 원숭이띠 (Monkey), 개띠 (Dog), 소띠 (Ox), 토끼띠 (Rabbit), 뱀띠 (Snake), 양띠 (Goat), 닭띠 (Chicken), 돼지띠 (Pig) with their respective characteristics and advice.